

#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U.K.

김 영 석(Young-Seok Kim)\*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3 공공도서관 건축      |
|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 4.4 직원 수          |
| 2.1 연구 방법            | 4.5 자료 현황         |
| 2.2 연구 목적            | 4.6 이용 현황         |
| 3. 영국 공공도서관 현황       | 4.7 운영 방법         |
| 4. 영국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 4.8 도서관의 친구 운영    |
| 4.1 운영 조직            | 4.9 학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
| 4.2 예산               | 5. 끝맺는 말          |

### 초 록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자,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 발전되어 있고, 모범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ABSTRACT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United Kingdom achiev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The British people, who gained free time, wanted to have library services. Thus,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in 1850, which was the first in the world. The local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public libraries using tax income and provided free library services. At present, the operation and services of British public librarie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exemplary, compared to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u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K. developed their public library operations and services, and how they operate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서비스, 영국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친구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Operation, Public Library Services, British Public Libraries, Friends of the Library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skim7@mj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8일

## 1. 머리말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건립·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및 시설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대규모 공연장 및 경기장 등이 대표적인 공공기관 및 시설인데, 이것들은 비영리시설이거나 개인이 건립·운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건립·운영하게 된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기록보존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 핵심시설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기관이며, 시민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이며,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며, 그리고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해주거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공공도서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한 사회나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단계에 도달하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울 때 갖게 되는 시설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나 사회는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이처럼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일찍 정치·경제적으로 안정 단계에 도달한 선진 국가들이 먼저 건립·운영하게 되고,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공공도서관을 앞서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자,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17세기 이후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스턴(Boston)시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시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해 1854년에 보스턴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이다. 현재도 이들 국가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고,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국가 중에서 영국을 선택하여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현

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내용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 2.1 연구 방법

외국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연구 대상 국가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을 보고, 현지 사람들 즉,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만나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헌조사 방법에서 한두 가지 유형의 자료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현지조사가 아닌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연구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쇄자료로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팸플릿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전자자료로는 전자저널, 웹DB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 2.2 연구 목적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운영

방법 및 서비스의 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 외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매우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 사서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예산, 조직 구성, 도서관 건축, 자료 수, 직원 수, 이용 현황, 운영 방법, 즉 개관 시간, 휴관일, 대출기간, 연체료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3. 영국 공공도서관 현황

영국 정부는 1850년에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의 '도서관(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근대적 개념의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자 영국 공공도서관 1호인 만체스터(Manchester) 공공도서관이 1852년에 개관하였다.<sup>1)</sup> CIPFA(2006)의 통계 <표 1>에 의하면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영국에

는 총 4,71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동도서관(mobil library)을 공공도서관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현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 도서관 수(4,712개관)에서 이동도서관(597개관)의 수를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4,115개관이 된다.

한편, 이동도서관을 제외한 4,115개 도서관 중 일주일에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138개관이 있다. 이들 도서관의 일부는 지자체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나 다른 기관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sup>2)</sup> 따라서 일주일에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의 일부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도서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서관을 영국의 공공도서관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민간단체 혹은 개인의 사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공도

서관 수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도 영국의 공공도서관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총 공공도서관 수(4,712개관)에서 이동도서관(597개관)을 제외한 수인 4,115개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 수는 인구<sup>3)</sup> 14,630명당 1개관에 해당 된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600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인구<sup>4)</sup> 81,650명당 1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이다. 이 수치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1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가 영국보다 5.6배 더 많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구가 영국보다 5.6배 더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과 주민들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공공도서관 건립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영국 공공도서관 수(2006년 3월 기준)

도서관 유형	10시간 이상 개관하는 도서관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총 도서관수	1관당 인구
도서관 수	3,977	138	597	4,712	14,630명 <sup>5)</sup>

1) Manchester Public Library, 2009, History of Central Library, [cited 2009.5.20].  
 <<http://www.manchester.gov.uk/site/scripts/documents.php?categoryID=500138>>.  
 2)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6,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CIPFA, 125.  
 3) 영국 인구 60,207,100명(2005년 7월 기준).  
 4) 우리나라 인구 48,991,000명(2008년 12월 기준).  
 5) 총 도서관 수(4,712개관)에서 이동도서관 수(597개관)을 제외한 수(4,115개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4. 영국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 4.1 운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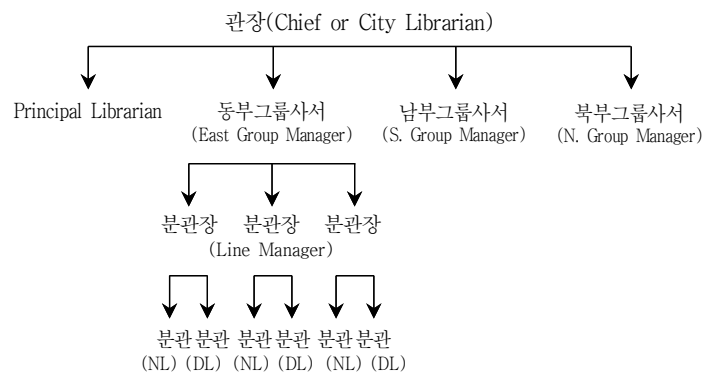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한 명의 관장 하에 운영되는 완전한 분관체제를 이루고 있다. 즉, 시·군·구 각 지방자치정부 관할 지역에는 1개의 중앙도서관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분관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있다. 분관들은 다시 규모가 다소 큰 '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과 이 보다 작은 '동네도서관(Neighbourhood Library)'으로 나뉜다. 지역도서관은 동네도서관에 비해 자료와 사서 수가 더 많고 개관시간도 더 길다.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역(동·서·남·북)으로 나뉘어 그룹을 형성하고, 각 지역의 책임자인 그룹사서(Group Librarian or Manager)에 의해서 중간 관리된다. 이 그룹사서 아래에 분관장(Line Manager)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분관장은 인접한 2개의 분관을

관리한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는 그룹사서 외에 그룹사서와 같은 위치에 있거나 한 직급 위에 있는 사서장(Principal Librarian)이 있다. 이 사서장은 직접 분관들을 관리하지 않고 지역의 전체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지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수행한다. 아래 <그림 1>은 영국 샌드웰시 공공도서관의 조직도표이다.

### 4.2 예산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2005/6 회계연도<sup>6)</sup> 동안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등에 약 2조 1,509억원<sup>7)</sup>(1,132백만 파운드)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들은 약 1,95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따라서 영국 공공도서관의 순지출은 1조 9,551억원(1,029백만파운드)이다. 이 금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예산 약 4,187억원의 4.7배에 해당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 예산을 인구 1,000명당 액수



<그림 1> 영국 샌드웰공공도서관의 조직도표

6) 2005/2006회계연도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임.

7) 2009년 5월 현재의 환율 시세에 근거하여 원화와 파운드화와의 환율차이를 1 : 1,900로 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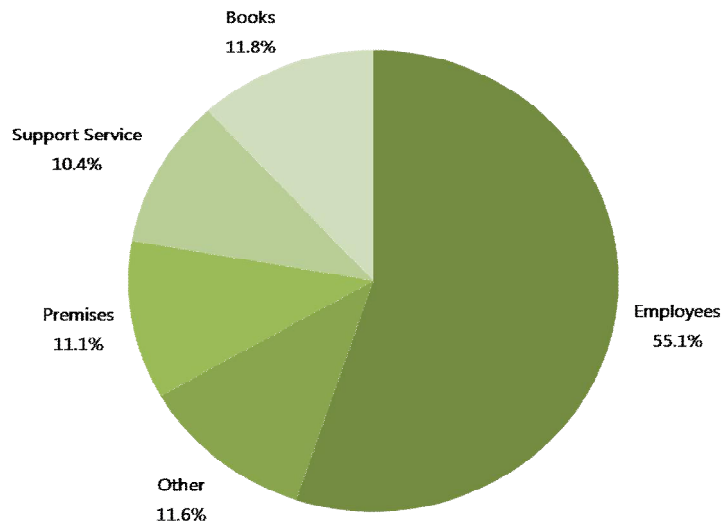
로 환산하면 약 3,247만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예산은 약 855만원이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도서관 예산은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 3.8배 많다. 아래 <그림 2>는 2005/6 회계연도 영국 공공도서관의 항목별 지출 현황으로 지출에서 수입을 빼기 전의 수치이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총 1조 1,845억원(623백만 파운드)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고, 자료구입비는 2,548억원(134백만 파운드)으로 전체 예산 중 1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말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5%로 인건비의 비중은 영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이 11.8%이고, 우리나라는 10.6%로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입비 예산은 영국이 총 2,548억원이고, 우리나라는 443억원으로 5.7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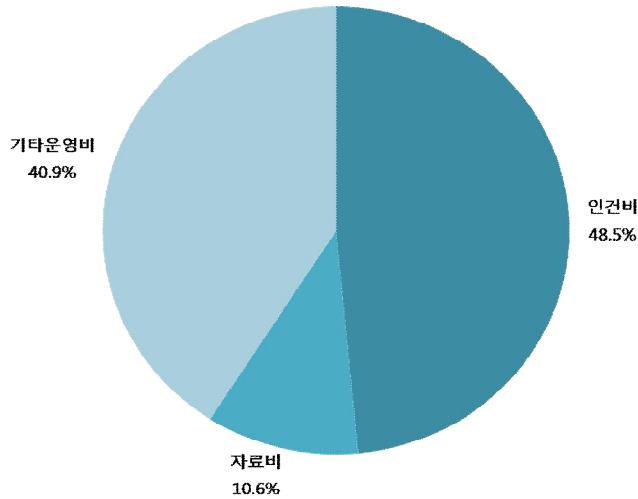
의 차이가 난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제외한 기타 예산을 살펴보면, 영국은 33.1%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0.9%로 기타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기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 같다. 이에 반해 영국의 기타 예산은 33.1%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참조).

한편, 영국의 공공도서관 예산은 다음 쪽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5/6회계연도 예산은 2000/1회계연도 보다 약 30%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말 이후 영국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영국 공공도서관의 항목별 예산 비율(2005/6회계연도)



〈그림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항목별 예산 비율(2006년)

〈표 2〉 영국 공공도서관 예산(2000/1 ~ 2005/6회계연도)

(단위 1,000파운드)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지출	878,584	930,911	1,016,550	1,061,767	1,099,052	1,132,071
수입	(86,825)	(105,580)	(138,379)	(111,238)	(108,610)	(103,068)
순지출	791,759	825,331	878,171	950,529	990,441	1,029,004

### 4.3 공공도서관 건축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한 시·군·구 지자체에서 하나의 중앙도서관과 여러 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분관체계를 이루고 있다. 영국 공공도서관 건축은 이 분관시스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지자체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큰 규모의 도서관을 시내 중심가에 건립하고, 나머지 분관은 반드시 소규모 형태로 주택가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건립해 왔다. 분관

의 건축은 전적으로 지역 도서관장의 지휘아래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건축과 크게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구분 없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왔고, 그러나 보니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건립되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물론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sup>8)</sup>에서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 분관들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아주 최근에 시작된 모습이다. 다음 〈표 3〉을 보면 영국 공공도서관의 규

8) 서울 광진정보도서관은 2008년에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광진구에 2개의 소규모 분관을 건립하였다.

모가 얼마나 작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수에 있어서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 7.3배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총 연면적에서도 1.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연면적에서는 영국과 우리나라는 1.15배의 차이로 좁혀진다. 즉,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연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연면적이 1.15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개별 도서관의 연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별 도서관의 연면적은 2,734㎡ 인데 반해, 영국 공공도서관의 연면적은 52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영국의 공공도서관보다 5.2배나 크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간 도서관의 총 연면적은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인구 10만명당 연면적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반해, 도서관 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공도서관을 지나치게 크게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건립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즉, 기존의 대형 도서관 건립에서 소규모 형태의 도서관 건립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

이다. 아래 <표 3>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공도서관 면적을 비교한 것이고, <그림 4>는 이러한 내용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4.4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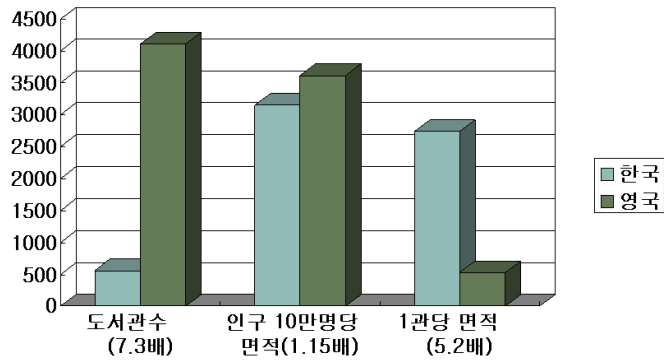
2006년 3월 기준으로 영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full-time 기준<sup>9)</sup>)은 총 26,506명이다. 이중에서 전문직<sup>10)</sup>은 5,852.8명이고, 기타 다른 직원은 총 20,653.6명이다. 전문직 직원의 수는 지난 2001년 이후 11.5% 감소한 반면, 다른 직원의 수는 같은 기간 2.3%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직원은 총 6,223명이고, 이중 사서직원은 총 2,560명이고, 행정직원은 977명 그리고 기타 다른 직원은 2,686명이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1관당 직원의 수는 6.3명이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는 1관당 11명이다. 즉,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는 영국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보다 1.8배 많다. 그러나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영국의 도서관보다 연면적이 5.2배 이상 크다. 물론 도서관에 필요한 직원 수를 연면적의 크기로 결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규모가 크다

<표 3>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공도서관 면적 비교(2006년 현황)

	도서관 수(관)	총 연면적(㎡)	1관당 면적(㎡)	인구 10만명당(㎡)
한국	564	1,541,846	2,734	3,147
영국	4,115	2,177,366	529	3,617
비교(한국 : 영국)	1 : 7.3	1 : 1.4	5.2 : 1	1 : 1.15

9) 시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 사서들의 총 근무 시간을 합하여 법정 근무 시간으로 나눈 수.  
10)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사서직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





〈그림 4〉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공도서관 면적 비교(2006년 현황)

는 말은 다양한 자료열람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열람실이 많다는 것은,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단층이 아닌 2층 이상의 구조이고, 각 열람실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아래 〈표 4〉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영국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4.5 자료 현황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총 1억 486만권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 도서 수 4,640만권<sup>11)</sup>보다 2.25

배 많은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장서 수도 많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1,742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947권을 소장하고 있어, 여전히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보다 1.84배 이상 더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한편, 절대적인 장서수의 차이는 양 국가간의 도서관 수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 대출 가능한 일반도서 총 7,735만권 중에서 어린이도서는 2,330만권으로 전체 도서의 30.1%에 해당된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가 전체 도서의 3분의 1에 해당되어 어린이도서가 상당

〈표 4〉 영국 공공도서관 직원수(full-time 기준)('00/1 ~ '05/6 회계연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1년 이후 변화(%)
전문직 직원	6,616.5	6,523.8	6,573.9	6,361.8	6,106.7	5,852.8	-11.5
기타 직원	20,194.0	20,338.1	20,991.1	21,418.8	20,485.0	20,653.6	2.3
합 계	26,810.5	26,861.9	27,565.0	27,780.6	26,591.7	26,506.4	- 1.1

11) 연속간행물 제본도서를 제외하였음. 왜냐하면 영국의 도서 수에는 연속간행물 제본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는 영국 공공 도서관의 인쇄자료 수를 나타낸 것이다.

#### 4.6 이용 현황

2005/6 회계연도 동안 영국 국민들의 공공 도서관 방문회수는 총 3억 4,216만회로 1인당 평균 5.68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단행본을 총 3억 2,305만권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1인당 5.37권에 해당된다. 한편, 영국 국민들은 비디오테이프, DVD, CD-ROM 등 비도서 자료를 총 3,603만개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0.59개에 해당된다. 도서와 비도서를 합하여 영국 국민들은 총 3억 5,909만개의 자료를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1인당 5.96개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6년 한 해 동안 도서와 비도서를 합하여 총 8,463만개의 자료를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1.73개의 자료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영국 국

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한 자료 수와 비교해서 1년에 3.44배 더 많은 자료를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6 참조).

#### 4.7 운영 방법

##### 4.7.1 개관시간

영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도서관에 따라서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 개관시간이 다르다. 그러나보니 개별 도서관의 총 개관시간이 도서관마다 다르다. 다음 쪽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영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이동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4,712개관이다. 이 중 이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은 총 4,115개관이다. 이 중 일주일에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138개관(3.3%)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총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 5> 영국 공공도서관의 인쇄 자료 수\* (2006.3.)

(단위 1,000권)

자료 유형	성인 도서		어린이 도서		일반도서		참고 도서	기타 도서 <sup>12)</sup>	총 도서수	
	소설	비소설	소설	비소설	총 도서수	인구 천명 당			총 도서수	인구 천명 당
자료수	27,031	27,020	15,980	7,322	77,354	1,285	15,797	11,713	104,863	1,742

\* 인구 천명당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단위는 1,000권임.

<표 6> 영국 국민들의 도서관 방문회수 및 자료 대출 수\* ('05/6 회계연도)

방문 및 대출	방문 수		단행본 도서 대출		비도서 대출		모든 자료 대출	
	총 방문(수)	1인당 방문	총 대출(권)	1인당 대출	총 대출(수)	1인당 대출	총 대출(수)	1인당 대출
수·권	342,168	5.68	323,059	5.37	36,032	0.59	359,092	5.96

\* 1인당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단위는 1,000임.

12) 정리, 제본, 수선 중인 도서.

일주일에 총 '10시간 이상 29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전체 4,115개관 중에서 1,446개관(35.1%)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에 총 29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영국 공공도서관 중 '30시간이상 44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1,426개관(34.6%)이고, '45시간 이상 59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은 1,027개관으로 전체 도서관의 24.9%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장 많은 '60시간 이상' 개관하는 도서관은 88개관으로 전체 도서관의 2.1% 밖에 되지 않는다. 영국에는 208개의 지방자치 정부가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한 개의 지자체에 각 한 개의 중앙도서관이 있다고 가정하면 중앙도서관의 총 수는 208개가 된다. 그런데 가장 많은 60시간 이상 개관하는 도서관이 88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전체 중앙도서관의 이론적인 수인 208개보다 적은 수다. 결론적으로 영국 각 지자체의 중앙도서관 중 절반 이상의 도서관이 일주일에 60시간미만 개관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총 588개 공공도서관 중 절

반이 넘는 300여개(51%)의 도서관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개관하고 있다.<sup>13)</sup> 아래 <표 7>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주당 총 개관시간별 도서관 수다.

이처럼 두 나라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영국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에는 한 도서관 당 서비스 대상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관들이 도서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 쪽 <표 8>은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셰필드시 위클리분관의 일주일 개관시간표이다. 이 도서관은 일주일에 4일 개관하고 점심시간(12:30~13:30)에는 개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7.2 휴관일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한 시·군·구에서 완전한 분관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의 휴관일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표 7> 영국 공공도서관의 주당 총 개관시간별 도서관 수

	주당 총 개관시간별 공공도서관 수						총 도서관 수
	10시간 미만	10-29 시간	30-44 시간	45-59 시간	60 시간 이상	이동도서관	
2000-01	217	1,696	1,530	703	25	655	4,826
2001-02	190	1,660	1,508	740	36	664	4,798
2002-03	168	1,588	1,474	848	54	656	4,788
2003-04	154	1,534	1,451	935	62	640	4,776
2004-05	274	1,465	1,433	954	78	585	4,789
2005-06	138	1,446	1,416	1,027	88	597	4,712

13) 도서관연구소, 200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현재 진행 중인 연구).

〈표 8〉 워클리공공도서관의 일주일 개관시간표

		Walkley Library														
요일	시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일일 총 개관시간
일																0
월																8
화																0
수																7
목																0
금																7
토																3
(노란색이 개관시간) 일주일 총 개관시간																25

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분관은 중앙도서관과 비교해서 그 역할과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휴관일이 더 많다. 그리고 다시 분관 중에서 소규모인 동네도서관은 지역거점도서관보다 휴관일이 더 많다. 또한 같은 동네도서관 중에서는 서비스 대상 지역이 좁거나 인구가 적은 분관은 그렇지 않은 분관보다 휴관일이 더 많다. 그리고 이웃한 분관들은 같은 요일에 동시에 휴관하지 않도록 휴관일이 결정된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을 한 지역(만체스터, Manchester)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체스터시의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22개<sup>14)</sup> 조사 대상 도서관 중 20개 도서관은 매주 일요일에 휴관한다. 분관 중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3번 휴관하는 도서관이 1개관이고, 2번 휴관하는 도서관은 11개관이다. 한편 휴관일 없이 일주일 내내 개관하는 도서관은 중앙

관이 아니고 두 개의 분관이다. 중앙도서관은 10개의 주제별 열람실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의 열람실을 제외하고 모두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휴관한다. 아래 〈표 9〉는 만체스터공공도서관의 주당 휴관일 수를 나타낸다.

개관시간과 휴관일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총 15시간 개관하는 한 개의 도서관만 일주일에 3일 휴관하고 있다. 그리고 분관 중 일주일에 50시간미만 개관하는 14개 도서관은 일주일에 이틀 혹은 하루 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개관하는 6개 분관 중 4개 도서관은 일주일에 하루 휴관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도서관은 휴관일 없이 일주일 내내 개관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10개 주제별 자료실 중 시각장애인실은 일주일에 17.5시간 개관하고 있고, 휴관일은 일요일 하루다.

기록보존실은 일주일에 28시간 개관하고, 휴관

〈표 9〉 만체스터 공공도서관들의 주당 휴관일 수

주당 휴관일 수	3일	2일	1일	0일
도서관 수	1	11	8	2

14) 인구 458,000명의 만체스터시에는 23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한 개 분관은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여 조사 할 수 없었다.

일은 금·토·일 3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열람실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개관하고 휴관일은 일요일 하루다. 결론적으로 개관 시간이 길지 않은 소규모 분관이 자주 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까이에 위치한 두 개의 분관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휴관일을 운영하고 있다. 즉, 두 개의 분관 중 하나의 분관이 휴관할 때 다른 분관은 개관하도록 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만체스터공공도서관의 휴관일 유형에 따른 도서관 수는 아래 <표 10>과 같다.

#### 4.7.3 대출 및 연체료

대출기간은 도서관의 자료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단행본의 경우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기간이 3주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출기간이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2주 그리고 일부 도서관에서 1주인 것과 비교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기간이 길면 책을 대출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출 자료에 대해서 단행본도서는 한 번에 걸쳐 3주간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음악 CD나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대출기간은 일주일이다. 이들 비도서 자료의 대출은 유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대출할 때 지불한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음악 CD의 대출요금은 일주일에 950원(50펜스)이고, 비디오테이프의 일주일 대출요금은 1,900원(1파운드)이다.

이용자 1인당 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도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단행본 도서의 경우 1인당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비도서 자료의 경우는 1인당 2점까지 가능하다.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자료반납일을 넘겼을 경우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어린이이용자에게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도서 자료는 유료 대출 자료이기 때문에 어린이이용자가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반납일을 넘겼을 경우에도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단행본 도서의 경우 하루 1권당 연체료는 228원(12펜스)이고, 일주일간 대출이 허용되는 DVD 등 자료의 연체료는 하루 1점당 570원(30펜스)이다. 이틀간 대출이 허용되는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하루당 대출연장요금은 950원(50펜스)이고, DVD 자료의 경우 하루당 대출연장요금은 3,800원(2파운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2005/6년 회계연도 동안 총 303억원(1,597만 파운드)의 연체료 수입을 올렸다.

다음 쪽 <표 11>은 2007년을 기준으로 인구 458,000명에 23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만체스터(Manchester)공공도서관의 연체료(fine) 및 대출연장요금(recharge)<sup>15)</sup>에 관한

<표 10> 만체스터 공공도서관의 휴관일 유형에 따른 도서관수

휴관일 유형	일요일	일·월요일	일·월·수요일	일·화요일	일·수요일	일·목요일	일·금요일	일·토요일	휴관일 없음
분관수	4	1	1	5	3	4	1	1	2

15) 대출연장요금은 유료 대출 자료의 대출기간이 지난 경우 대출연장의 의미로 처음 대출할 때 부과한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함.

〈표 11〉 만체스터공공도서관의 연체료 및 대출연장요금

구 분	내 용
연체료 및 대출연장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하루당 228원(12펜스).</li> <li>• CD, 구술자료(spoken-word), 어학자료, 놀이자료: 228원(12펜스).</li> <li>• 일주일간 대출이 허용되는 DVD, 비디오테이프, VCD, CD-ROM,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루당 대출연장요금 570원(30펜스).</li> <li>예, 이들 자료를 하루 연체했을 경우 연체료는 하루에 570원이 됨.</li> <li>• 이틀간 대출이 허용되는 비디오 및 DVD: 연체시 각 자료의 대출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루당 계산한 대출연장요금.</li> <li>예, 비디오(이틀 대출 요금 950원) 자료를 하루 연체했을 경우 연체료는 하루에 950원이 됨.</li> <li>DVD(이틀 대출 요금 3,800원) 자료를 하루 연체했을 경우 연체료는 하루에 3,800원이 됨.</li> </ul>
연체료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료는 개관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즉 휴관일은 연체료 계산에서 제외됨. 예를 들면, 전(前)주 토요일이 반납일인데 자료를 반납하지 못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관일이어서 화요일에 반납할 경우 하루 연체한 것이 됨.</li> </ul>
연령별 연체료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세 이하 어린이는 연체료나 대출연장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li> <li>• 13~15세 이하 어린이는 도서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서 외의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함.</li> <li>• 16~59세 이용자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함.</li> <li>• 60세 이상 이용자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대출연장 요금은 납부해야 함.</li> <li>• 0~17세 시각 장애인은 연체료와 대출연장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li> <li>• 18~59세 시각 장애인은 연체료와 대출연장요금을 납부하여야 함.</li> <li>• 60세 이상 시각 장애인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대출연장요금은 납부해야 함.</li> </ul>

사항이다. 위의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체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는데, 크게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라서 연체료와 대출연장요금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8 도서관의 친구 운영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경우 그 도서관과 관련된 사람들 즉, 학생, 교사 혹은 교수, 학부모, 동문, 은퇴교수들, 그리고 국가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단체)이다. 2009년 현재 우

리나라 2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1970년대 초부터 도서관의 친구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들로부터 다방면에 걸쳐 많은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지원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관이 폐관위기에 처하였고, 그리고 많은 분관<sup>16)</sup>이 실제로 폐관하였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폐관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도서관의 친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도서관을 폐관으로부터 지켜냈다. 이렇듯

16) 1970년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20여년 동안 약 500여개의 분관이 폐관되었다.

많은 도서관의 친구들이 80~90년대 영국 공공 도서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직되었다.

공공도서관의 폐관위기 과정에서 조직되었던 도서관의 친구들은 도서관이 폐관위기를 벗어나자, 이제는 다양한 활동 — 기금모금, 자원 봉사, 캠페인, 홍보 지역주민 연계 — 을 통해서 동네도서관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영국에는 약 200여개의 (공공)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는 지역연합회 그리고 전국에는 전국연합회<sup>17)</sup>가 구성되어 있다.

#### 4.9 학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영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관리

국(Public Library Authority<sup>18)</sup>)은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두어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관리국은 지자체 내의 여러 개의 분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분관에 학교도서관 지원 전담 부서(학교도서관서비스팀, School Library Services)를 두거나 아니면, 별도의 건물(사무실)을 마련하여 그 곳에 학교도서관서비스팀을 두어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각 지자체의 도서관관리국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서비스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각 도서관관리국 내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은 대체로 <표 12>와 같은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2> 영국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내용

학교도서관 서비스 내용	
1. 프로젝트 수업 관련 자료 대여(projects loans)	-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에 참고 할 수 있는 자료, 즉 도서, 사진첩,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교도서관에 일시적으로 대여
2. 정보 및 조언(information and advice)	- 각종 어린이도서 대한 정보제공 및 구입 대행 - 학교도서관의 관리운영, 교육 및 학습자료 서비스에 대한 조언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활용 교육 실시	
4. 공공도서관 견학 주선 및 공공도서관 견학 때 안내	
5. 이동도서관 학교 방문	
6. 학교의 특별 전시회 지원	
7. 특별 장서 제공 서비스	- 절기별 자료, 시집, 수학 관련 자료, 이중언어도서, 향토자료, 예술작품
8.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활용 교육 실시	
9. 기타 서비스	- 장서 유지, 관리, 개발 - 사서지원 - 도서 보수, 레이블링, 책 커버 입히기, 폐기 업무 지원 - 직원 사서업무 교육 및 어린이에게 도서관 운영 교육 - 도서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17) Library Campaigns라고 하는 NGO단체가 주체가 되어 '영국 도서관의 친구 전국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18) 각 지자체에서 한 개의 중앙도서관과 여러 개의 분관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의 한 부서를 Public Library Authority (도서관당국)이라고 한다.

## 5. 끝맺는 말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현장 사서들에게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4,11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14,630명당 1개의 도서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2월 기준으로 600개<sup>19)</sup>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인구 81,650명당 1개의 도서관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개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인구는 영국의 도서관보다 5.6배 더 많다.

둘째, 영국 공공도서관의 2005/6 회계연도 순지출은 1조 9,551억원으로, 2006년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예산 4,187억원보다 4.7배 더 많다. 인구 1,000명당 예산은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3,247만원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예산 855만원보다 3.8배 더 많다.

셋째, 영국 공공도서관의 총 직원 수는 26,506명이다. 이중에서 전문직 직원의 수는 5,852.8명(22.1%)이고, 다른 직원의 수는 20,653.6(77.9%)명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 직원 수는 6,223명이다. 이중에서 사서직원 수는 2,560(41.1%)이고, 다른 직원의 수는 3,663명(58.9%)이다.

넷째,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총 1억 486만권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총 4,640만권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인쇄자료의 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1,742권, 우리나라 도서관이 947권으로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보다 1.84배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 국민들은 2005/6 회계연도에 총 3억 5,909만개의 자료를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1인당 5.96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6년 한 해 동안 8,463만개의 자료를 대출하였는데, 이것은 1인당 1.73개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영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 3.44배 더 많은 자료를 대출하였다.

여섯째, 영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전반적으로 짧다. 전체 도서관(4,115개) 중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개관하는 도서관은 88개관(2.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600개관 중에서 3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개관하고 있어, 두 나라 간에 개관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주일에 45~59시간 개관하는 도서관은 1,027개관(24.9%)이고, 30~44시간 개관하는 도서관은 1,426개관(34.6%)이다. 그리고 10~29시간 개관하는 도서관은 1,446개관(35.1%)이다. 10시간미만 개관하는 도서관도 138개관(3.3%)이 나 된다.

영국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전반적으로 많다. 각 지자체의 중앙도서관은 휴관일이 일주일에 하루이지만, 분관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2~3일 그리고 아주 작은 분관의 경

19) 한국도서관협회, 2009, 『2008 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95.



우 4일인 경우도 있다.

일곱째, 영국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서는 3주이다. 음악CD, 비디오와 DVD 자료의 경우는 이들 자료의 최신성 여부에 따라서 대출기간은 이들 혹은 일주일이다. 비도서 자료의 대출은 유료이다. 이용자가 대출반납기간을 넘겼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는 이용자의 연령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여덟째, 영국의 200여개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로비 및 캠페인 활동을 하고, 도서관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관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홉째, 각 지자체의 도서관관리국은 조직 내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을 두고 별도의 인력, 자료 그리고 시설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도서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소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예산은 너무 적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공도서관 예산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증원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 직원은 총 20,653.6명이고,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직원은 총 6,223명이다. 이것을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인구 10만명당 도서관직원이 34.3명이고, 우리나라는 12.7명에 불과하여, 영국의 도서관직원 수는 우리나라보다 2.7배나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영국의 도서관보다 연면적이 5.2배나 더 넓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에 더 많은 직원, 특히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직원의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총 1억 486만권의 인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총 4,64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 영국 공공도서관의 인쇄자료 수는 우리나라의 2.25배에 해당된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1,742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947권 밖에 소장하고 있지 않아 두 나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서의 양에서 1.84배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를 늘리면 전체 장서 수도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개관시간이 너무 길고 휴관일은 거의 없어 직원의 근로복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야간 및 주말 정규직 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 국민들의 자료 이용률을 높인다. 우리 국민들의 자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거지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없어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주거지 근처에 건립 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20개 공공

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있다.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서가 주체가 되어 더 많은 도서관에서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도서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처럼 각 지자체 내에 별도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을 조직하고, 직원과 자료 그리고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도서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참 고 문 헌

- [1] 강애라. 2008. 영국의 공공도서관을 둘러보다. 『우리교육』, 219: 76-81.
- [2] 김영석. 2004. 변화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문화』, 45(4): 50-51.
- [3] 김영석. 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48.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5] 양중희, 권숙인, 김우식. 2003. 『영국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주)지식마당.
- [6] 유미숙. 2002. 이게 도서관이야. 『국회도서관소식』, 12: 19-22.
- [7] 이만수. 2003. 『공공도서관 길라잡이(上)』. 서울: 한국학술정보.
- [8] 최달현. 1980. 영국의 도서관법 연구. 『도서관학논집』, 7: 177-213.
- [9] 한국도서관협회. 2007. 『2007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0] 한국도서관협회. 2009. 『2008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1]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6.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CIPFA.
- [12] Manchester Public Library. 2009. History of Central Library. [online]. [cited 2009.5.20]. <<http://www.manchester.gov.uk/site/scripts/>>.
- [13] Library Campaign. 2009. Welcome to the Library Campaign. [online]. [cited 2009.5.10].

- 〈<http://www.librarycampaign.com/Home>〉.
- [14] Manchester Public Library. 2009. Manchester Factsheet. [online]. [cited 2009.5.11].  
 〈[http://www.manchester.gov.uk/downloads/A1\\_Man\\_Factsheet\\_Aug08\\_1\\_.pdf](http://www.manchester.gov.uk/downloads/A1_Man_Factsheet_Aug08_1_.pdf)〉.
- [15] Manchester Public Library. 2009. Fines and Charges. [online]. [cited 2009.5.15].  
 〈2008. <http://www.manchester.gov.uk/site/scripts/>〉.
- [16] Sheffield Public Library. 2009. School Library Services. [online]. [cited 2009.5.10].  
 〈<http://www.sheffield.gov.uk/libraries/find/all-libraries/schoollibrary>〉.
- [17] Leeds Public Library. 2009. School Library Services. [online]. [cited 2009. 5.12].  
 〈[http://www.leeds.gov.uk/Community\\_and\\_living/Libraries/Library\\_services.aspx](http://www.leeds.gov.uk/Community_and_living/Libraries/Library_services.aspx)〉.
- [18] Sandwell Public Library. 2009. School Library Services. [online]. [cited 2009.5.10].  
 〈<http://www.laws.sandwell.gov.uk/ccm/navigation/education-and-learning/teaching/schools-library-servic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Ae-Ra Gang. 2008. "Yeonggukui Gonggongdoseogwaneul dulleoboda." *Urigyoyuk*, Serial Number 219: 76-81.
- [2] Young-Seok Kim. 2004. "Byeonhwahaneun Yeonggukui Gonggongdoseogwan." *Doseogwanmunhwa* 45(4): 50-51.
- [3] Young-Seok Kim. 2007. "A Study on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in Ko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Small Public Libraries in the U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29-48.
- [4] Doseogwan jeongbo jeongchaek wiwonhoe. 2008. *Doseogwanbaljeonjonghapyehoeok 2009-2013*. Souel: Daetongryeong sosok doseogwan jeongbo jeongchaek wiwonhoe.
- [5] Jong-Hui Yang, Sook-In Kwon, and Woo-sik Kim. 2003. *Yeonggukui Munhwasaneopchegye*. Souel: (Ju)Jisikmadang.
- [6] Mee-Suk Yu. 2002. "Ige Doseogwaniya." *National Assembly Library News*, Dec.: 19-22.
- [7] Man-Soo Lee. 2003. *Gonggongdoseogwan Gillajapi(Sang)*. Soeul: Hangukhaksuljeongbo.
- [8] Dal-Hyun Choi. 1980. "Yeonggukui Doseogwanbeop Yeongu." *Doseogwahaknonjip*, 7: 177-213.
- [9]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7. *2007 Korea Library Year Book*. Soue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2008 Korea Library Year Book*. Souel: Korean Library Association.

